인간과 자연의 공존 앞장

익산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제정 자연 보호 나서

익산시가 야생 동·식물 보호를 통한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앞장선다.

29일 익산시에 따르면 야생 동·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를 제정, 자연보호에 나선다.

시는 이 조례에 따라 야생생물보호를 위해 필요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한다.

또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출입할 경우 출입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토록 함으로써 원활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보호구역에서는 공작물의 신축·증축, 토지의 형질 변경이 제한되며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수량을 증감시키는 행위가 규제된다. 아울러 토석의 채취나 수면의 매립·간척, 불을 놓는 행위 등이 엄격히 제한된다.

야생생물 보호구역에서는 특정수질 유해물질과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인화성 물질 소지와 취사·야영 행위, 보호구역 안내판 표지물 파손·훼손 행위, 소리·빛·악취 등으로 야생생물을 쫓는 행위, 산 작물 채취·벌채 행위 등은 할 수 없도록 규정된다.

그러나 군사 목적, 천재지변이나 재해의 예방·복구, 영농행위 지속을 위한 농사와 수산물 채취 등의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호구역을 훼손하는 경우 시장은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 과태료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된다.

보호구역 지정을 통한 효과적인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익산시는 해당 지역과 주변 지역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된다.

시 관계자는 "야생생물을 보호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며 "사람과 자연을 함께 보호하는 생태계 환경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군산시 우수기관 성정 표창

군산시가 29일 전북도에서 주관하고 전북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주최하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계자 연찬회(약 300여명 참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전북도지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군산시 지역자율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총 사업비 2,666백만원에 총16개 사업(지역사회투자사업 : 15개, 가사간병사업)으로 운영되며 서비스이용자는 3,112명, 서비스 제공기관은 59개소로 지역별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자체 발굴하여 시민들에게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편적 복지 실현,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군산시는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제공인력 자체교육과 이용자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D/B 자료 구축, 이용자 만족도 평가, 개선사항 등을 도출하기 위해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영숙 교수와 공동으로 '군산시 사회서비스 이용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역량강화 및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김장원 군산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되도록 노력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과 원활한 소통과 정보 공유를 통해 원활한 사업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 기원

군산시, 내달 3일 지역축하행사 진행

12월 3일, 30년 만에 한국을 찾은 올림픽 성화가 근대문화의 도시 군산의 곳곳을 밝히며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한다.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기념 성화봉송은 지난 1일 인천을 시작으로 제주, 부산, 경상도, 전남을 거쳐 내년 2월 9일까지 7,500명의 주자들이 101일간의 일정으로 2,018㎞를 달리게 되며, 전북에서는 지난 28일 남원을 시작으로 임실, 무주, 전주, 익산을 거쳐 12월 3일 군산에서 일정을 마무리하고 12월 5일부터 충남 남부지역으로 이동한다.

12월 3일, 행사 당일 오전 11시, 성화봉송의 첫 주자는 군산 나운신협을 출발해 월명종합경기장, 경암동 철길마을, 진포사거리 등 군산시 일원을 달린 후 오후 7시 이후 근대역사박물관에 도착하여 성화를 안치할 예정이다.

성화봉송 주자가 근대역사박물관을 도착하기에 앞서 박물관 옆 행사장에서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대회의 성화봉송을 환영하는 지역축하행사가 성대하게 개최된다.

개막공연은 전통 타악연주그룹 '동남풍'이 '진포의 기원'이라는 주제로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상모놀이, 장구놀음, 북놀음을 준비하여 멋과 신명나는 한 판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어서 성화봉송 마지막 주자의 성화 안치가 끝나고 나면 축하공연으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이수자이자 살풀이춤 전수자인 김정숙 무용단장의 창작무용이 '진포의 메아리'라는 주제로 진행되어 역경의 역사를 지켜온 선조들의 얼과 소리가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메아리로 울려 퍼짐을 표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한마음으로 성화를 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의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은 군산시청 조정팀 8명과 공개로 모집한 일반시민 66명 등 총 74명을 봉송주자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광혜당약국에서부터 근대역사박물관까지 총 20.2㎞구간을 달리며 군산 일원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을 만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대학교가 군산대학교 내 황룡문화관 2층에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를 설립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설립 · 개소식

전북가야 위상 · 실체 밝히는 구심점 역할 기대

군산대학교가 군산대학교 내 황룡문화관 2층에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를 설립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나의균 군산대학교 총장 및 가야문화연구소 임직원, 전라북도를 비롯한 남원시, 장수군 등 전북 가야사 관련 지자체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 R&D 연구센터로 처음 문을 열었고, 전북 가야사와 관련된 활발한 조사와 연구 활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왔다.

그러다가 최근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가야사 연구 및 복원사업'이 포함되면서, 전북지역 가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가야사 관련 문화재 조사 및 연구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군산대학교에서는 호남지역 유일의 가야사 전문 연구소로서 전문성과 독창성을 확보하는 한편, 가야사 관련 전문 연구자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그간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이었던 가야문화연구소를 군산대학교 직속 부설연구소로 새롭게 설립하였다.

개소식에 참석한 나의균 총장은 "향후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가 전라북도 가야사 연구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대학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군산대학교 내 황룡문화관 2층에 새롭게 공간을 마련한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는 향후 정부 및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전북가야의 위상과 실체를 밝히는 일에 앞장 설 계획이다.

/군산=김판곤기자

군산대-산업잠수협동조합 상호발전 업무협력 협약 체결

군산대학교는 29일 군산대학교 본부 제 1소회의실에서 ㈜산업잠수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협약식에는 군산대 나의균 총장을 비롯해 이기영 군산대 해양산업기술교육센터장, 산업잠수협동조합 정준상 대표, 김지현 박사, 이주헌 이사, 곽성훈 이사, 서울산업잠수학원 광주지점 이방일 원장 등이 참석했다.

해양산업 기술 분야 특수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련 기술 프로그램 연구개발 협력을 포함해 ▲관련 분야 전문 인력 취업 촉진을 위한 공동노력 ▲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협의체 구성 및 상호 발전 도모 ▲강의, 특별 강연, 세미나 등 공동 개최 및 참여 ▲행사 공동 주최 및 참여 ▲연구과제 수행 시 공동연구 수행 ▲각종 정보교환 및 공유 등을 골자로 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상호 비즈니스 발전 및 성장에 관한 제반 사항에서 상호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대, '개교 70주년 기념 감사의 밤' 개최

군산대학교가 지난 28일 군산 한원컨벤션 별관에서 "개교 70주년 감사의 밤"을 개최하고, 군산대학교 발전을 후원해준 후원인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의 밤에는 군산대 나의균 총장을 비롯해서 발전기금조성후원회 임원, 후원의 집, 총동문회 임원, 최고경영관리자과정 총동문회, 교내 주요 보직자, 도내 기업 및 기관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군산대학교 홍보동영상 상영, 재단 및 대학현황 소개 등 간략한 순서에 이어 리셉션 및 개별 환담으로 이어졌다.

나의균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그동안 군산대학교가 이룩한 성과들을 돌아보니 모두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얻어낸 성과들이었다"면서 "앞으로도 학생, 동문, 교직원, 지역사회라는 네 바퀴의 균형을 잃지 않고 더욱 노력해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대학으로 성장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군산=김판곤기자